

청소년 불교사이트 '물 오른다'

신학기를 맞아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청소년들이라면 사찰여행, 불교교리, 음악 등 불교계의 일간정보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된 불교 사이트를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가족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많이 하고 있는 요즘 '승운이와 함께 떠나는 불교여행'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사찰 답사 계획을 짜보자. 생명나눔실천회의 도움으로 배승운양외대 이란어과 3년이 운영되고 있는 이 사이트를 클릭하면 전국에 기쁜만한 유명 사찰들을 지역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승운이...'는 전화번호는 물론 찾아가는 길을 비롯해 불만한 성보문화재, 사찰 역사 등을 사진자료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꾸며놓아 청소년들이 사찰 답사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해준다.

이 사이트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정민(동대부고 2년)은 "쌍계사, 통도사 등 승운 누나의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 가족들과 함께 사찰 답사를 많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찰을 갈 수 있게 풍부한 사찰자료를 많이 올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前 불교TV PD 출신인 서재영씨가 운영하는 '서재영의 불교기초교리강좌'도 청소년 초심자들이 기초 교리 공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이트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불자예절을 비롯해 천수경 및 제마불경 강좌까지 불교교리의 기초부터 고급단계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아 청소년들이 궁금한 주제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재미있게 불교공부를 할 수 있다.

공부하다 집중이 안되는 학생들은 '홍

순지의 불교음악과 명상음악' 사이트에 들어가 보자. 불국사 합창단 지휘자로 이태리 유희과 출신의 성악가인 홍순지씨의 불교가곡과 찬불가, 명상음악을 들

교리·음악·여행자료 등백

다양한 주제 업데이트 절실

다보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신이 한 곳으로 모아져 스트레스를 쉽게 떨쳐 버릴 수 있다. 또 이 사이트에는 한국 전통 노래만 부르는 그룹사운드의 음악도 소개돼 있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만 골라 언제든지 다운받아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디음악, 테크노댄스, 만화



사이트명	주소
승운이와 함께 떠나는 불교여행	sh.hanarotel.co.kr/~love/shalalla
홍순지의 불교음악과 명상음악	user.chollian.net/~studiog
서재영의 불교기초교리강좌	www.buruna.org
선재인터넷방송국	www.acten.com
양정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www.power1318.com
하자 청소년 센터	www.haja.or.kr/html/hjib.htm
좋은벗 풍경소리	www.bdsori.co.kr
파라미타 부산	cafe.daum.net/paramitapusan

영화 주제가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사연을 소개해주는 선재인터넷 방송국도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다. 현재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

◇인터넷을 통해 불교교리, 음악, 여행 등 다양한 불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청소년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은 '승운이와 함께 떠나는 불교여행' 사이트 화면.

주부 실행담

금강경을 외우며 ㉞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왠지 모를 기쁨이 항상 마음속에 넘쳐흘렀다. 그 기쁨은 무슨 일을 성취함으로써 얻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또한 그 기쁨은 가시적인 성과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침으로써 얻어지는 일종의 환희심 같은 것이었다. 이럴때마다 나는 곧잘 '마크 빅터 한센'의 기쁨의 시를 외운다.

로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해본 기억이 별로 없고, 투정을 부려 본적은 더더욱 없다. 오직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일했으며 내 자식 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힘써왔다. 이런 나를 주위에서는 대학출신의 현대 여성이라고 하지 않고, 1백년전 조선시대의 고전 여성이라고 했다.

남편은 직장에서 유능한 편이었지만, 무척 까다롭고 성격이 불같아서 옆에서 내조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남편과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건드 '나'라는 이상을 앎고 모든 것을 희생한 결과 아니었다 생각된다. 아무튼 나에

오늘은 기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곧 기쁨입니다. 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또 성장해 갑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기쁨을 나



그림 · 이준석

가족을 부처님처럼 보며 살자

겁니다. 나는 기쁨에서 출발해서 기쁨으로 달려 갑니다. 나는 기쁨 속에서 즐거워합니다.

<금강경> 공부를 계속함에 따라 고민거리라고 생각되었던 일들은 점차 사라지고, 기쁜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또 부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커졌으며 기쁜일과 슬픈 일 등 모든 생각을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바치게 되었으며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나 자신은 완전히 무(無)가 되었다.

나의 결혼은 남편이 훌륭했다거나, 남편에게 사랑 받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던 남편이 나 정도라면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 듯 싶어 선택했다는 것이 솔직한 토

게 남편의 하는 일과 가정은 절대적이었다. 내 자신 때문에 남편이나 자녀의 일에 일체의 지장을 가져오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남편과 몇 십 년을 함께 살아 왔지만, 알고 보면 남편과 나는 성격이 여러모로 달랐다. 남편이 철두철미하다면 나는 대범한 편이었고, 남편이 세상에서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면 나는 약하고 어리숙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서로 잘 맞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인연인지 부부로 만난 것이다. 천하고 다정한 듯해도 알고 보면 가족이란 다 전생의 업보로 써 맺어진 것이라는 말도 있다. 이 업보를 슬기롭게 풀면서 가족을 가족으로 보지 않고 부처님처럼 보도록 하는 일이 바로 불교수행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계속)

김초심행 (서울시서대문구연희2동)

부산 불교 중·高 연합회, 파라미타로 통합 청소년 포교 도약 '훈풍'

파라미타 부산 청소년연합회(총재 성오스님)는 6일 부산시청 동백출에서 '200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분리 활동하던 부산불교중·고학생연합회와 부산불교고등학교학생연합회(사)파라미타 부산 청소년연합회로 통합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파라미타 부산 청소년연합회는 산하에 중등부와 고등부를 조직해 운영토록 했으며 정종근 해동중학교 교장과 김창오 해운대학교 교장을 각각 중등부와 고등부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통합은 그동안 두 단체가 분리 운영되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

청소년 단신

어린이 연꽃노래잔치 예선

서울불교청년회와 좋은벗 풍경소리가 주관하는 전국어린이 연꽃 노래잔치 예선이 내달 8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다.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독창과 중·합창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중·합창은 예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독창부문 4월 7일, 중·합창 부문은 4월 14일까지 서울불교청년회 사무국으

미술·음악 등 문화강좌 운영

부산 양정청소년 수련관은 신학기를 맞아 스포츠,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분야에 걸쳐 방과 후 취미 활동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실시되는 프로그램에는 중·고생을 위한 탁구 교실, 만화그리기, 가야금배우기, 글짓기, 스포츠댄스 등이 있다. 이번 강좌는 3월~4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전화나 양정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051)868-0750

윤재학기자의 손 이야기 ㉞

■ 수상(手相) ①

흔히 사람들은 '수상(手相)' 하면 '손금'을 떠올린다. '인생살이 손금대로 되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로 골절 한다. 막연하게나마 손금을, 예정된 운명의 신호로 여기는 얘기가.

그렇다고 손금이 곧 수상은 아니다. 손금은 수상의 한 부분일 뿐이다. 수상에서는 손의 전

나 재능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허황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손금이 가는 사람은 분석적이기보다는 직관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기 쉽다. 분석적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직업보다는 감성과 직관이 중요한 분야, 즉 예술 분야가 유리할 것이다.

재능·성격 나타내나 생각 환경 따라 변화

손금이 굵은 사람은 관찰력과 분석력이 뛰어나다. 매사에 합리적이며 사회적 규범과 상식에 충실하다. 이런 사람은 학문이나 종교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가나 기술자 등 현실 적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유형이다.

하지만 수상을 불변의 운명 지시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생각이나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손의 메시지를 읽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면 인생의 즐거움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체 모양, 손금, 두께, 탄력, 혈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의 재능, 성격, 건강 따위를 읽는다. 먼저 손가락 끝의 모양이 담고 있는 수상학적 의미를 살펴보자. 누구나 알고 있듯이 두뇌와 손놀림은 공명한다. 따라서 손놀림의 가장 정교한 부분을 담당하는 손끝의 모양에서 그 사람의 성향이

마음 맑히는 책 3
승산 스님의 가르침

승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큰 의심덩어리!

부처님께 재를 털면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흠칠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심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스티븐 미첼 위음, 최윤정 옮김/ A5신 386쪽/ 값 9,000원

역사이론은 '돌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이론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지허 스님의 선방일기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선동야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